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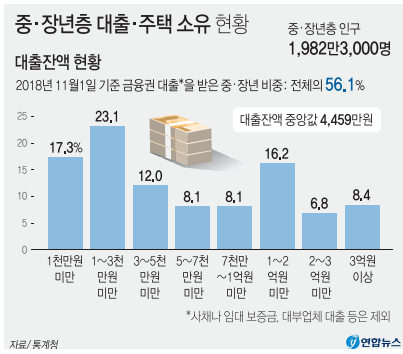
중장년층 절반 이상 ‘은행빚’...집 사면 4배로

대출잔액 1천만~3천만원 23.1% ‘최다’

30세 이상 미취업자 ‘깡겨루족’ 36만명

만 40~64세 중장년층의 절반 이상은 금융권에 빚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세 이후에도 취업하지 않고 중장년층 부모와 함께 사는 이른바 ‘깡겨루족’은 36만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8년 기준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체 중장년층(1천982만3천명) 중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전년보다 0.8%포인트 늘어난 56.1%로 집계됐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권 대출은 사채나 임대 보증금, 대부업체 대출 등은 제외한 수치다. 대출잔액을 구간별로 보면 1천만~3천만원이 23.1%로 가장 많았고, 1천만원 미만(17.3%)이 뒤를 이었다. 대출잔액 중앙값은 4천459만원으로 전년보다 8.0% 증가했다. 중앙값을 세부적으로 보면 남성(5천96만원)이 여성(3천547만원)의 1.4배, 행정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는



‘등록 취업자’의 대출 중앙값(5천370만원)은 미취업자(2천500만원)의 2.1배였다. 비임금근로자(7천800만원)는 임금근로자(4천876만원)와 비교해 1.6배의 빚을 지고 있었다.

주택담보대출 등의 영향으로 주택소유자의 대출(8천846만원)은 무주택자(2천201만원)의 4배에 이르렀다. 작년 주택을 한 채 이상 소유한 중장년은 전체의 42.0%였다. 비중은 전년보다 0.6%포인트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45.2%, 여성은 38.7%가 주택 소유자였다. 연령별로는 60대 초반이 44.9%로 주택 소유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대가 내려갈수록 비율은 낮아졌다. 이와 함께 작년 기준 중장년층이 가구주이거나 가구원으로 있는 중장년 가구는 1천295만9천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64.9%를 차지했다. 이들 중장년 가구의 거처는 아파트

가 5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독주택(28.7%), 연립 및 다세대주택(11.8%) 순이었다. 중장년층 가구의 59.2%는 자녀와 같이 살고 있었다. 같이 사는 19세 이상 자녀(513만9천명) 중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미취업자의 비율은 46.4%(약 238만명)였다. 중장년층 부모와 함께 사는 30세 이상 자녀(106만7천명) 중 ‘깡겨루족’의 의미와 부합하는 미취업자의 비율은 3.8%(약 36만명)였다. 중장년층 부모와 동거하면서 취업상태인 19세 이상 자녀는 53.6%(275만6천명)로, 이 중 94.6%가 임금근로자로 일했다. /연합뉴스



대한건설협전남도회, 이웃돕기 성금 전달

대한건설협회전남도회는 연말을 맞아 전남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사회공헌 업무협약기관인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총 4천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달한 성금은 전남도 14개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세대에 지원될 예정이다. 공후식 전남도회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지역건설업계의 구심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메주 익어가는 마을. 농한기를 맞아 텅장으로 유명한 강진군 군동면 전통된장마을 주민들이 메주를 말리고 있다. 가을에 수확한 콩을 삶아 절구에 곱게 치고 메주를 만들어 40여일간 말린 뒤 물과 천일염으로 장을 담근다. /강진군 제공

내년 직장인 월평균 건강보험료 3천653원 오른다

지역가입자도 가구당 부담 월평균 2천800원 ↑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3천653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천800원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가구당 2천204원 증가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를 결정 사항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

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료를 인상률은 3.2%다.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3천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800원이 각각 오른다. 2020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8.51%에서 10.25%로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를 인상률은 20.4%다. 실제 소득 대비 부담률은 0.68% 수준이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1천273원으로 올해 9천69원보다 2천204원 증

가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하위 1~5분위 가구는 488원~1천341원, 상위 6~10분위 가구는 1천716원~6천955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 등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올해 월 318만2천760원에서 내년 월 332만2천17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보수월액)에 물리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664만4천340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은 332만2천170원이다. /연합뉴스

광역 소통플랫폼 ‘에너지소통혁신위’ 발족

오늘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에너지소통혁신위원회는 26일 광주홀리데이인 호텔에서 학계, 방송·언론계, 기관, 경제·산업계 등 각 분야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는 광역 소통 플랫폼인 ‘에너지소통혁신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에너지소통혁신위원회 출범은 현재와 미래의 에너지 문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분출되고 때로는 전 국민적 난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 인식 하에서 에너지문제를 둘러싼 수많은 의견을 매끄럽게 풀어내기 위한 사회적 소통과 혁신을 이뤄내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광역지역의 각계 최고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이 위원회는 현재와 미래의 에너지 문제에 대해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하고 원전산업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객관적으로 분석, 대의 소통방향을 제시해 광역지역과의 진솔한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원전산업의 중장기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언하는 활동 등도 적극 펼쳐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위원회와 함께 광역기반의 소통과 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원자력발전소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하고, 위원회도 국민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발족식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과 한빛원자력본부 한상욱 본부장 및 임직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은성기자

해양에너지 ‘또 하나의 가족 산타’ 행사

㈜해양에너지는 지난 20일 광산구 자원봉사센터와 ‘또 하나의 가족 산타’ 행사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해양에너지의 후원증서 전달식을 비롯 임직원과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자봉산타가 돼 산타가족 서약식, 전문강사에게 안마 배우기, 선물포장 및 전달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자원봉사자들은 독거노인을 직접 찾아가 안마를 해드리고, 겨울철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경량 패딩, 내복, 방한부츠, 담요 등 ㈜해양에너지 후원금으로 마련한 사랑이 담긴 선물을 전달했다. 해양에너지는 지난 2008년부터 매월 임직원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모금해

조성한 ‘사랑의 만미운동기금’으로 12년을 한결같이 연말 성탄절을 맞아 저소득층을 찾아 조그마한 힘이 되고자 ‘해양에너지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해양에너지 김형순 사장은 “성탄절을 앞두고 자봉산타 행사를 통한 나눔 활동으로 홀로 지내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양에너지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눔 활동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에너지는 저소득층 인재육성 및 소방관 자녀 장학사업, GIST 배움마당, 복지관 배식봉사, 노후 가스보일러 교체 등 지역과 함께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박은성기자



기계설비협 광주·전남도회 결식학생 후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지난 23일 광주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후원금 1천만원을 (세빛고를결식학생후원재단에 전달했다. 광주·전남도회 최봉호 회장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이 지역 설비건설업체 육성 발전에 노력을 기울여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도 다함께 마음만은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 사업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한전, 군부대 위문금 2천만원 전달

한국전력은 지난 24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위문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로부터 방문한 김회천 한전 경영지원부사장은 군이 국가 안보를 위해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고 있는데 깊은 감사의 뜻을 밝혔다. /박은성기자

금매전문

[원룸,빌라,주상복합부지]

1) 오치동 2중주거 6미터 대302㎡ 급매5억 (3.3㎡당549)

2) 두암동 2중주거 8미터 대281㎡ 급매4억 (당470)

3) 북동 중심상업 4미터 806㎡ 급매12억2,000 (당500)

[다용도 토지]

1) 하남산단 공업지 10미터코너 8,265㎡(3.3㎡당200)

2) 화순 의로단지설 전원단지조성지661㎡(3.3㎡당 45만원)

3) 지원동(월남)도접 주거1종 3,222㎡(3.3㎡당 350만원)

4) 장성,산정리 도접 주거1종외9,900㎡(3.3㎡당 40만원)

5) 신가동 도접 주거1종7,000㎡(3.3㎡당 250만원)

[월세많은 빌딩]

광주역앞 병원상업지838㎡5층건물 승강기2,주차20

급매24억3,000(보1억 월1,800만원)

***상가빌딩, 모텔, 가든, 나대지

지방, 섬땅등 투자 손님 다수 대기중입니다

연락주시면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금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현대공인중개사

치평동 상무우리병원에서 50m

☎ 370-1900 📠 010-2006-0115

〈 광주 인근 지역 매매 물건 구함 〉

(장성 담양 나주 화순 함평 곡성)

물건의 종류 : 건물 / 대지 / 임야 / 전답 / 기타

〈 광주지역 매매 임대물건 구함 〉

물건의 종류 : 건물 / 토지

〈 급매물 단 시일 내 책임중개 〉

대표 공인중개사 김학제

CMYK